

일본 高麗美術館 소장 19세기 조선백자 연구*

방 병 선**

- I. 서론
- II. 所藏品の 種類와 特徵
- III. 所藏品の 樣式的 特徵
- IV. 陶磁史的 意義

I. 서론

조선 도자사에서 19세기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자 수요층의 확대와 음식 문화의 변화, 활발한 對淸·對日 交流 등의 영향으로 이전과 다른 도자 양식이 등장하였다. 특히 19세기 도자만의 독특한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기형과 문양이다.

前代에 이어 청화백자뿐 아니라 鐵畫白磁와 銅畫白磁, 多彩色 磁器를 흉내 낸 靑畫鐵彩, 靑畫銅彩 등의 백자가 생산되었는데 특히 청화철채, 청화동채의 제작 예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器種도 마찬가지로여서 양반계급의 증가에 따라 문방구 생산이 급증하여 많은 연적과 필통, 필가 등이 제작되었다. 문양은 遠近과 大小가 무시되어 독특한 공간구성을 이루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 2005-041-G00031).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는 민화풍의 길상문양이 청화백자에 중요하게 구성되었다. 기형은 다양한 형태의 飲食器皿과 祭禮器皿, 담뱃대와 떡살, 담배합, 촛대 등의 生活器皿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세기 자기는 기형과 문양, 장식에서 중국도자를 모방한 것도 있으나 이 시기 조선백자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멋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을 드러내는 19세기 백자에 대한 연구는 문양과 기형, 장식적 특징과 分院 민영화와 결부된 생산체제의 변동 등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¹ 먼저 19세기 백자에 관한 문헌자료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생산 양상과 양식적 특징, 대청·대일 교류 등의 영향에 따른 문양과 기형에 대한 비교, 고찰이 여러 논저에서 다루어졌다.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본원 민영화와 북학파와 연관하여 19세기 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같은 도자관 역시 다루어졌다. 또한 민화풍의 문양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고 길상적 의미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졌으며 청대 자기와 비교한 제작기술적 분석도 행해졌다. 19세기 조선백자 관련 국내외 저서는 姜敬淑, 『韓國陶磁史』(일지사, 1989); 同著, 『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姜萬吉,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한길사, 1984); 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同著, 『순백으로 빛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돌베개, 2002); 同著,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문예출판사, 1993);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일조각, 1970);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문예출판사, 1991); 정양모·윤용이·김득풍, 『韓國白磁陶窯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秦弘燮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5), (7)(一志社, 1996); 河宇鳳, 『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일지사, 1989); 홍희유, 『조선 중세수공업사 연구』(지양사, 1989); 同著, 『조선수공업사』(백산자료원, 1991); 香本不苦治, 『朝鮮의陶磁と古窯址』(雄山閣, 1976); 久志卓眞, 『朝鮮の陶磁』(雄山閣, 1975); 中島浩氣, 『肥前陶磁史考』(靑潮社, 1985); 淺川巧, 『朝鮮陶磁名考』(朝鮮工藝刊行會, 1931); 熊海堂, 『東亞窯業技術發展與交流史研究』(南京大學出版社, 1995) 등 외에 다수가 있으며, 논문 역시 姜寬植, 「朝鮮後期 美術의 思想的 基盤」, 『韓國思想史大系』 5 近世後期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同著, 「朝鮮後期 宮中 冊架圖」, 『美術資料』 66호(국립중앙박물관, 2001); 고경신·도진영,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 출토 철화백자와 청화백자의 과학기술적 연구」, 『충주 미륵리 백자가마터』(충북대학교 박물관, 1995);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나타난 청대 자기의 영향 연구」(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金智淑, 「조선백자의 성분분석 및 미세구조 연구」(중앙대학교대학원 화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羅善華, 「分院里窯 末期 靑畫白磁에 나타난 銘文資料」,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4); 方炳善, 「朝鮮 後期 白磁의 製作技術 研究」, 『美術史學研究』 214(한국미술사학회, 1997); 同著,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체제」, 『美術史學研究』 220(한국미술사학회, 1999); 同著, 「고종 연간의 분원 민영화 과정」, 『역사와 현실』 33호(한국역사연구회, 1999); 同著, 「조정 박제가·윤암 이회경의 도자인식」, 『미술사학연구』 238·239(한국미술사학회, 2003); 同著, 「조선후기 사기장인 연구」, 『미술사학연구』 241(한국미술사학회, 2004); 同著, 「한국 도자 제작기술 연구」, 『강좌미술사』 23호(한국불교미술사연구회, 2005); 송기범, 「韓國 近代陶磁 研究」(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윤용이, 「朝鮮19世紀 分院白磁의 特色」, 『廣州 分院里窯 靑畫白磁』(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4); 李源福, 「朝鮮白磁에 나타난 葡萄畫」, 『美術資料』 39호(국립중앙박물관, 1987); 張起熏, 「朝鮮時代 白磁龍樽의 樣式變遷考」, 『미술사연구』 12호(미술사연구회, 1998); 張南原, 「朝鮮後期 李圭景의 陶磁認識: 『五洲衍文長箋散考』의 「古今瓷窯辨證說」과 「華東陶瓷辨證說」을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제6호(한국미술연구소, 1998); 田勝昌, 「朝鮮 18-19世紀 銅畫·銅彩白磁 考察」, 『방법론의 설립: 한국미술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Los Angeles Country Museum of Art(ACMA), 2001); 同著, 「朝鮮後期 白磁裝飾의 民畫要所 考察」, 『미술사연구』 제16호(2002); 鄭良謨, 「司窰院

그럼에도 현존하는 국내외 19세기 백자는 胎質이 열악한 것이 많고 그 종류도 한정되어 있어 제작기법이나 다양한 기종의 양식을 분석하는 데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작기술의 실체와 문양과 기형에 대한 더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器種에 대한 양식 고찰을 중심으로 더욱 천착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일본 교토에 소재한 고려미술관 소장 백자들을 기형과 문양의 양식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정리하였다.² 고려미술관은 재일교포인 故 鄭詔文 씨가 남긴 1,700여 점의 기증품이 중심이 되어 1988년 개관한 사립미술관으로, 고려와 조선 시대 工藝·繪畫·典籍·民俗品 등을 주로 수집·연구해 왔으며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³

소장품 중에서도 조선시대 백자는 그 질과 양에서 다른 분야의 소장품에 비해 우수하고, 특히 200여 점에 이르는 19세기 청화백자는 국내외 어느 미술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청화백자 찬합과 十長生文항아리 등과 대접, 항아리, 접시, 병, 각병을 비롯하여 각종 연적류의 다양한 기형과 청화 색상은 19세기 백자 가운데서도 백미로 여겨진다.

고려미술관은 개관 이후 소장품 도록과 전시도록 등을 통해서 소장중인 조선백자 작품들을 일부 공개해 왔다.⁴ 그러나 도자 연구의 특성상 實見과 도록 사진 참고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에도 일정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색상과 문양, 제작 기법 등의 이해는 실견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한 작품 해석과 양식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과 分院], 『白磁·粉青沙器』國寶 8(藝耕産業社, 1984); 同著, 「京畿道 廣州分院 窯址에 대한 編年的 考察」, 『韓國白磁陶窯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鄭良謨·崔健, 「조선시대 후기백자의 쇠퇴요인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石南李慶成先生古稀紀念論叢(일지사, 1988); 崔健, 「朝鮮時代 後期 白磁의 諸問題」, 『陶藝研究誌』 5호(漢陽女專陶藝研究所, 1990); 同著, 「大韓帝國時代の 陶磁器」, 『오얏꽃 황실생활유물』(공중유물전시관, 1997); 崔敬和, 「편년자료를 통하여 본 19세기 청화백자의 양식적 특징」, 『美術史學研究』 212(한국미술사학회, 1996); 崔公鎬, 「서구 산업문명의 유입과 工藝觀의 변모」, 『美術史學』 11(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97) 등 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² 高麗美術館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 소장 한국문화재 자료 조사 도록 시리즈의 일환으로 소장처 소개와 일부 유물 사진과 크기 등을 게재하여 발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⑥ 일본 소장 ③』(1997). 이 도록은 국내에 고려미술관 소장품을 장르와 시기를 망라하여 많은 양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인쇄된 사진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고 굵이나 다른 면의 사진, 유물 설명이 없는 점이 아쉽다.

³ 高麗美術館, 『高麗美術館 藏品圖錄』(2003). 설립자 정조문씨의 유물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다. 이경재, 『일본 속의 한국 문화재』(미래M&B, 2000), pp.110-117.

⁴ 高麗美術館, 『朝鮮王朝의 青花白磁 李朝染付』(1991); 高麗美術館, 『高麗美術館 藏品圖錄』. 이외에도 지금까지 72호에 달하는 館報를 통해 꾸준히 작품들을 소개해 오고 있다.

鶴, 梅竹, 八寶, 草花, 蝙蝠, 잉어, 佛手, 모란, 구름, 매화, 囍문 등으로, 대부분 길상문에 속하는 것이며 山水와 騎驢圖 등도 시문되었다.

연적은 4각형이 가장 많은 10점이고 원형이 2점, 6각과 8각이 각 2점, 부채가 3점, 두꺼비가 2점이며 이밖에 새, 사자, 복숭아, 대나무, 거북이, 집, 산형 등이 각 1점씩이다. 장식방법으로 나누어보면 청화연적이 21점, 철화연적이 1점, 청화와 철화가 섞인 연적이 1점, 청화와 동화가 섞인 연적이 4점, 동화연적이 1점이며, 청화와 녹색이 혼용된 연적 1점이 특이한 예이다.

2. 造形과 제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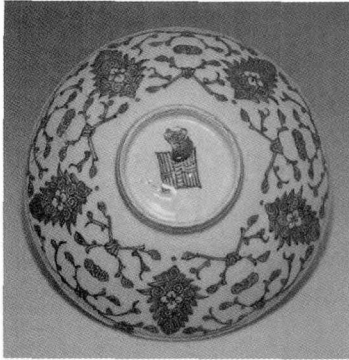
고려미술관 소장품들의 조형과 제작 특성을 정리하면 <표 3>·<표 4>와 같은데, 그 조형 특성은 대체적으로 19세기 백자의 전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태토와 유약의 색상은 청백과 순백이 주를 이루었다. 회백을 띠는 작품이 한두 점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비와 정제가 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19세기 백자들이 청백색을 많이 띠는 것을 볼 때 시대적 특성과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혹 철분이나 안료가 飛散되어 유약 표면에 부착된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성형의 경우 각형 그릇이나 뚜껑이 있는 합은 접합부나 결합부의 처리가 매끄러워 국내의 소장품에 비해 우수하다. 貼花기법으로 몸체에 부착된 편병의 다람쥐나 꽃 등도 균열 없이 제대로 부착되었다⁵. 특히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연적에서 19세기경에 성형 기술이 전 시기에 비해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연적은 원형·사각·육각·팔각 등의 기하학적 형태뿐만 아니라 집 모양, 高山峻峰에 바위·동굴·폭포·가옥까지 표현된 산 모양, 부채 모양 등이 있으며 실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⁵⁰⁻⁵². 또한 두꺼비, 거북이, 복숭아, 대나무, 해태, 사자, 새 등과 같은 동물 형상을 조각할 때는 원형의 일부분을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해학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표현하였으며, 이 역시 19세기 조선백자에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31, 35, 54-59}.⁷

문양은 19세기에 등장하는 각종 길상문의 종류를 거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였다. 八寶文과 각종 기하문, 왕실 전용의 운룡문을 비롯해서 복을 상징하는 佛手·모란·박쥐, 장

⁷ 조선시대 문방구에 대해서는 다음 도록을 참조. 국립중앙박물관, 『朝鮮時代 文房諸具』(1992).



삽도 1 白磁靑畫寶相華文樓匙,
清 嘉慶年間(1796-1820),
높이 5.3cm 밑지름 6.0cm
입지름 16.7cm

수를 상징하는 나비와 십장생 등의 문양은 농담 처리가 뛰어나고 청화 발색도 우수하다^{도2,3,11,17,20}.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물에 시문된 문양은 전문 화원의 솜씨로 여겨진다. 몇 점 안 되지만 철화와 동화로 장식된 유물들도 대체로 시문이 잘된 편이다^{도56-59}.

시유는 일부 유약이 박락된 것으로 보아 유약의 두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치밀하게 태도와 밀착되어 있다. 燒造는 합외의 내면이나 발의 굽 부근에 일부 산화된 부분도 있으나 발색으로 보아 대체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제작된 백자는 일반적으로 번조시에 모래를 받치고 구운 예가 많지만 사용할 때 굽 주위를 갈아서 원형을 알 수 없는 작

품들이 많기 때문에 번조 방법과 번조시 사용한 도구들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III. 所藏品의 樣式的 特徵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백자를 기능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祭禮器와 飲食器, 文房具, 化粧容器, 貯藏容器와 雜具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례기인 주병들은 19세기 들어 대개 몸체의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양감이 풍성한 것이 특징이다.⁸ 〈백자청화보상화문육각병〉과 〈백자청화기하편복문육각병〉이나 〈백자청화모란접문병〉은 모두 이러한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병들이다^{도9-11}. 특히 〈백자청화보상화문육각병〉은 형태가 특이해서 성형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양은 보상화를 꽃과 잎을 분리하여 공예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19세기 清代 嘉慶年間(1796-1820)에 제작된 〈청화백자보상화문접시〉^{삽도1}에서도 볼 수 있다.

〈백자청화모란접문병〉은 병의 구연부에 종속문대를 두른 것이 다른 병들과의 차이점이다^{도11}. 이는 더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문양 표현에도 훨씬

⁸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일지사, 2000), pp.328-330.

더 회화적인 성향을 보인다. 특히 육각기형은 중국의 경우 이미 明代부터 접시와 화병 등에 등장하다가 청대 들어서는 雍正(1723-1735)과 乾隆年間(1736-1795)에 제작된 화병에서 볼 수 있다.⁹ 그러나 고려미술관 소장 청화백자육각화병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조선의 장인들이 육각의 개념을 당시 유행하던 병의 기형에 적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을 항아리는 대개 19세기 들어 구연부가 길어지고 굽 부근에 절삭면이 생기는 등 기형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고려미술관 소장 <白磁靑畫十長生文壺>는 18세기에 비해선 구연부가 길어졌지만 측사면의 절삭면은 아직 보이질 않아서 완전한 19세기 형태의 항아리로 보기는 어렵다². 다만 사슴의 문양 표현이 생경하고 이전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져서 18세기 후반의 작품이 아닐까 여겨진다. 역시 18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白磁靑畫雲龍文壺>는 용의 비늘과 얼굴에 보이는 사실적 표현들에서 19세기의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³. 龍樽은 19세기 왕실 의례에서 다른 기명들이 중국 도자로 바뀌는 것과 달리 꾸준히 사용되었는데,¹⁰ 다만 용과 구름의 크기와 포치, 비늘과 얼굴 등에 나타난 사실적인 묘사 등에서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¹¹

제례시 사용된 고려미술관 소장 <白磁靑畫十長生文雙耳香爐>는 문양 이외의 여백을 청채로 장식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²¹. 특히 중국식으로 귀걸이를 달고 번조한 특이한 것으로 굽바닥에 '甲'이 새겨질 정도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甲'은 甲燔을 의미하는 것인데 갑번은 일상적인 진상품인 例燔과 다른 別燔으로 더욱 정교하게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¹²

⁹ 육각 기형의 중국 도자 수장 양상을 보면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17세기 전반의 五彩蝶匙(Suzanne Valentine, *A HANDBOOK OF CHINESE CERAMICS*[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89], p.196, plate no.192)가 있으며, 영국 빅토리아앤앨버트박물관에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의 粉彩蝶匙가 소장되어 있다(Margaret Medley, *THE CHINESE POTTER*[PHIDON, 1989], p.244, Fig.189).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시아박물관에는 隆慶年間(1567-1572)의 오채 육각항아리와 雍正年間(1723-1735)의 청자 육각병이 소장되어 있다(He Li, *LA CERAMIQUE CHINOISE*[de L'Amateur/L'Aventurine Paris, 1998], p.233, plate no.459, p.280, plate no.545). 또한 중국 남경박물관에는 건륭연간(1736-1795)의 <粉彩花卉文六角筆筒>과 <黃地靑畫六角瓶>이 있다(南京博物院編著, 『中國清代官窯瓷器』[上海文化出版社, 2003], pp.278, 316).

¹⁰ 김미경, 「19세기 조선백자에 나타난 청대 자기의 영향 연구」(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28-44.

¹¹ 방병선, 「雲龍文 분석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백자의 편년 체제」, 『美術史學研究』 220(한국미술사학회, 1998), pp.45-78.

¹² 『承政院日記』 1105冊, 英祖 30年 4月 29日條 “上曰 此下教後 又欲一飭廚院矣 (중략) 上曰 君臣猶父子 何可不言乎 元良兒時 自分院造來磁器怪石 以此推之 其多造巧制可知矣 仍命書傳教曰 頃者莫重磁器 有寒心者 故申飭 而其時欲爲下教而不果 此亦禁奢惜費 便匠安民一道也 此後特教別燔外 廚院堂郎 毋得任意別燔 其別燔者 卽甲燔也



삽도 2 白磁靑畫菊花文盒·盞·鉢,
 조선 19세기, 해강도자미술관
 (좌)높이 13.8cm
 입지름 16.8cm 밑지름 7.5cm
 (중)높이 5.8cm
 입지름 9.8cm 밑지름 4.9cm
 (우)높이 9.4cm
 입지름 20.5cm 밑지름 9.4cm

墓誌石도 儀式器로 볼 수 있는데 고려미술관 소장 李命熙 묘지석은 1793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네 모서리를 둥글게 마무리하여 19세기 묘지석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도30}.¹³

음식기명은 19세기 들어 외래 양념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그 종류가 증가하였다. 北學派 徐有榘(1764-1845)의 형수이기도 한 빙허각 이씨의 『閨閣叢書』에는 다양한 음식이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밥도 오곡밥과 약밥 등이 등장해서 이를 담기 위해서는 당연 커다란 그릇이 소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⁴ 이를 뒷받침하듯 19세기에 등장하는 합(盃)의 크기는 이전에 비해 큰 편이다. 문양 시문도 화려해서 고려미술관 소장 〈白磁靑畫佛手文盒〉^{도20}은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白磁靑畫菊花文盒〉^{삽도2}과 뚜껑의 측면 경사도가 급하고 윗부분이 편평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청화 발색이 우수하고 태질도 좋은 편이다. 또한 같은 불수문이 시문된 1852년으로 추정되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白磁靑畫佛手文鉢〉^{삽도3}보다 명암과 음영 표현 등에서 필치가 뛰어나서 동일한 기형과 문양을 지닌 다른 청화백자들에 비해 품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음식기명인 〈白磁靑畫雲文二段盒〉도 문양 이외의 부분을 청채하여 ^{도24}, 화려하게 장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다층합은 중국에서는 이미 明代부터 등장하였다. 중국의 다층합은 실용과 감상을 목적으로 화려한 장식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합(盃)의 용도는 여러 가지 반찬을 담았던 饌盒으로 보인다. 찬합은 2단에서 5단까지 있는데, 고려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운문이단합〉은 이단이지만 뚜껑과 몸체의 결합이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私造巧制若飭 此禁奢也 其無別燔 而匠手工歇 則此便民也 例燔之外 無他燔而有餘土 此惜費也 雖有不時加用 而其無白土加定 此安民也 爲廚院堂郎者 焉敢犯令(하락).”

¹³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도록을 참조. 온양민속박물관, 『朝鮮時代 誌石의 調査研究』(1992).

¹⁴ 憑虛閣李氏, 『閨閣叢書』(1809) 권1, 酒食議.



삽도 3 白磁靑畫佛手文鉢과 대접
 '입주큰던곳간오',
 1852년, 이화여대박물관
 (좌) 높이 9.0cm
 입지름 14.5cm 밑지름 8.9cm
 (우) 높이 8.2cm
 입지름 18.1cm 밑지름 8.5cm

〈白磁靑畫牡丹文注子〉도 몸체 중심에 19세기에 유행한 커다란 모란문이 주제문으로 시 문되었고, 角形의 출수구와 몸체에서도 19세기 주자의 전형적인 기형을 볼 수 있다²³. 이와 유사한 문양과 기형을 가진 주자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⁵

〈白磁靑畫花文접시〉는 병렬문과 선문, 복관화문 등의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을 선보이고 있다²². 이러한 문양 구성은 19세기 청화백자 접시 가운데서도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格子文과 波濤文, 龜甲文, 網文 중에 두 가지 정도를 결합하여 문양을 시 문하는 양상과 비교할 수 있다.

다음은 양반 지식인의 표식으로 인식되었던 문방구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쌍의 두꺼비 연적이다. 두꺼비 연적은 다양한 연적의 형태 중에서도 이미 조선 전기부터 꾸준히 만들어졌으며, 후기에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19세기 문방구류 중에 상당수가 중국 磁器들을 모방하여 제작되었던 당시 경향과 비교하면 두꺼비 연적은

¹⁵ 국립중앙박물관, 『水晶先生蒐集文化財』(1988), p.16, 도판 279 참조.

¹⁶ 朴祥(1474-1530), 『訥齋集』卷4, 律詩 七言 題硯滴 “穿然兩發玉蟾蜍. 空洞一巖自容三十軸. 老聃元是貴無車”; 金鏞(1766-1822), 『潭庭遺藁』卷4, 白瓷硯滴 “襄院甲燻瓷 齊言純色好 蟾蜍靜似銀 上品權家造(司襄權直長中任 送甲燻硯滴 體質純白)”

조선적인 서정성을 그대로 간직한 기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특히 〈白磁靑畫銅彩蟾形硯滴〉은 현재 알려진 다른 두꺼비 연적들에 비해서 비교적 크기가 큰 편이고, 얼굴 표정이나 몸체 표현이 우수한 편이다^{56, 57}. 이렇게 두꺼비 연적이 한 쌍으로 남아 있는 예는 드문 편이며, 청화와 동채 등 다양한 색상 배합으로 장식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白磁靑畫金剛山形硯滴〉은 그 모양이 금강산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금강산형 연적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문헌에는 대개 假山硯滴으로 등장한다^{50, 17}. 19세기 들어 이전보다 훨씬 사치스런 문방구를 즐기던 풍조가 성행하면서 산의 형상을 본뜬 가산연적도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미술관 소장 연적은 산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연적들에 비해 크기가 대형이고, 바위·골짜기·누각·인물 표현 등도 정교하고 화려하여, 19세기 산형 연적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을 만하다.

化粧容器로는 〈白磁靑畫마름모文盒〉, 〈白磁靑畫蟲文盒〉, 〈白磁靑畫十長生壽文六角盒〉 등을 들 수 있으며, 粉盒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²⁷. 이 작품들은 소형함으로 청화 발색은 선명하지 않지만 당시 유행하던 원형이나 육각형 화장함의 전체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靑彩陽刻梅畫囀文四角盒〉²⁸은 화장함으로는 매우 드문 기형이다. 매화와 '囀' 자 등을 양각하고 외면을 청채한 것으로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저장용기인 pun주 혹은 食素羅로 불리는 대형 그릇들로는 〈白磁靑畫蝙蝠文pun주〉, 〈白磁靑畫잉어文pun주〉, 〈白磁靑畫壽文pun주〉가 있다¹⁷⁻¹⁹. 이러한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름에 차를 여럿이 마시거나 餅菓類를 담는 데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기형은 이미 18세기 청대 자기에 유사한 것이 등장하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白磁靑畫囀文담뱃대〉는 백자로는 매우 드문 예이며, 국내외에 이와 유사한 담뱃대가 몇 점 소장되어 있으나 출연구와 빨대가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¹⁷ 李源祚(1792-1871), 『擬窩集』 卷13, 石假山硯滴詩序 “物貴眞而惡假 假者物之賊也 故古者僞物不鬻於市 後世好怪之風熾 而以假街者 鬻駸焉 甚則至毫髮錙銖不爽而眞鑿矣. 然物不自假而人假之 咎在人 物何與焉. 畫中之物皆假也 人不以爲嫌者文而已 巧者乃塼斲剪鏤 而爲之質 而人之樂而翫之 有浮於眞 所好不其異歟. 雖然物有可假之形 而後巧施焉 故天下有假山 無假水 物亦自取之也. 有人贈余以石假山硯滴 曰願以修文房具. 余復曰 吾居未嘗無山 何以假爲 且山非房闔物 斲而小之爲點滴 用得其形而沒其實 人與物俱有責也 敢辭. 旣而曰 噫 不思矣. 天下假者豈獨是歟 余特其尤者耳. 行不逮古人 而開口便說道德性命 此假言也. 藻繪之且不能 而曰吾左吾史與漢 此假文也. 無實以副之 而得此聲於相愛之口 此假名也. 以假言述假文而盜假名 此假人也. 有是四假 奚暇尤物 然人之假在我 物之假在人 在我者可改 而在人者不可改 余所以重悲物之不幸也 遂詩以謝之.”

¹⁸ 淺川巧, 『朝鮮陶磁名考』(朝鮮工藝刊行會, 1931), pp. 113-114.

없다도²⁹.

IV. 陶磁史的 意義

지금까지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 한국 도자에 대한 연구는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등의 지역 단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묶어서 각 기관의 소장 유물 전체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¹⁹ 여기에는 예산과 연구 인력, 현지 박물관의 협조 여부 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백자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경우에는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조사 시기·연구 방법·연구 결과물 등에 대해 미술관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미술관 측의 긴밀한 협조로 더욱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백자의 특징은 다양한 器種과 製作技法, 文樣 소재와 시문 방법의 다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기종의 경우 완, 발, 찬합, 주병 같은 음식기명과 향아리, 향로 등의 의례용기, 연적과 필가, 묵호 같은 문방구류, 묘지석 등 19세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백자 器種이 망라되어 있다. 문양도 운룡문과 산수문, 십장생, 박쥐, 불수, 모란, 포도, 다람쥐, 대나무 등으로 필치와 농담 처리 등에서 일부 열악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타 박물관 소장품들과 비교할 때 우수한 편이다.

장식기법도 다양해서 청화와 철화, 동화가 다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양각청화와 문양 이외의 여백을 청화로 채색하여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성형 기법을 보면 향로의 경우 귀걸이 연결 부위에는 유약을 칠하지 않고 번조하여 움푹임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층 찬합도 일그러짐 없이 이가 잘 맞물리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장식적으로 제작된 연적 등은 19세기 문방구류에서 느낄 수 있는 해학과 서정성, 과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공예미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¹⁹ 해외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제교류재단 등의 주관으로 1980년대 전반부터 진행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목록』(1986); 『일본 소재 한국전적 목록』(1991) 등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미국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1989); 『유럽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1992) 등을 비롯해서 양 기관에서 일본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소재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조사 기록을 책으로 발간하였다.

고려미술관 소장 백자는 모두 우수한 조형성과 제작기술 등을 갖춘 작품들로 조선시대 19세기 백자를 조명하는 데서 귀중한 자료로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高麗美術館(Koryo museum), 朝鮮白磁(Joseon porcelain), 19世紀 白磁(Porcelain of the 19th century), 靑畫白磁(Blue and White Porcelain), 硯滴(Water dropper), 吉祥文(Auspicious motif)

■ 투고일 2007년 1월 20일 | 심사일 2007년 2월 1일 | 심사완료일 2007년 2월 25일 ■

표 1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청화백자의 명칭과 크기

단위: cm

도판 번호	유물명 [유물 번호]	유물 크기			
		전체높이	입지름	밑지름	기타
		구연부·경부높이		굽높이	
1	白磁靑畫花鳥文壺[C-62]	28.3	12.7	13	
		2			
2	白磁靑畫十長生文壺[C-63]	42	14.8	15.8	
		3.5(밖), 4.2(안)		1(안)	
3	白磁靑畫雲龍文壺[C-65]	41.8	16	16.7	35.9~35.5 (폭)
		4.1(밖), 4.8(안)		1.6(안)	
4	白磁靑畫龜鶴文壺[C-66]	31.5	17.1	14.2	
		4.4(밖)		1.5(밖), 1.3(안)	
5	白磁靑畫葡萄文다람쥐形雙耳扁瓶 [C-67]	21.5	5.2	8.5(길이)	12.8 (다람쥐길이)/ 1.2(높이)
				3~3.2/2.6(폭)	
6	白磁靑畫山水文壺[C-68]	32.8	14.5	14.2	
		5.8(밖)		2(밖), 1(안)	
7	白磁靑畫粟文瓶[C-70]	9.8	2.5	6.5	
		1.6(밖)			
8	白磁靑畫草蟲文八角瓶[C-94]	36.5	5.7	11.2(각), 10.5(면)	8/7.8/7.1/7.5/ 8.7/7/8.1/7.1 (한면 너비)
		11.9(밖)		1.7(굽)	
9	白磁靑畫寶相華文六角瓶[C-95]	18	3.3	9.2(면), 10.2(각)	
10	白磁靑畫幾何蝙蝠文六角瓶[C-96]	28	7.2(각) 6.4(면)	12(각), 11.3(면)	9.2~9.5 (몸통 지름)
		13.8(밖)		1(굽)	
11	白磁靑畫牡丹蝶文瓶[C-97]	33.8	5	13.1	
		14.6(밖)		0.8 내외(밖)	
12	白磁靑畫竹鶴文瓶[C-98]	23.7	3	9.1	10(몸통지름)
13	白磁靑畫松竹鶴文四角瓶[C-99]	17.5	2.3	9×9.4	13.1 (몸체높이)
		4.5(밖)			
14	白磁靑畫梅竹文四角瓶[C-100]	15	2.7	8.5×7.9	12.5(몸체높이)
15	白磁靑畫結文四角瓶[C-101]	11.5	2.3×2.3	7.2×6.8	8.6×8.6 (몸체너비)
		3.1(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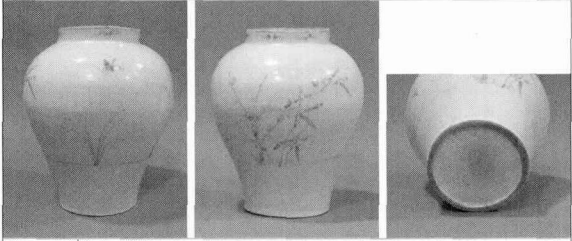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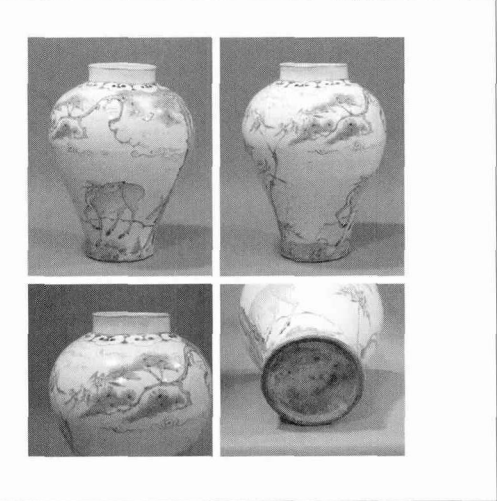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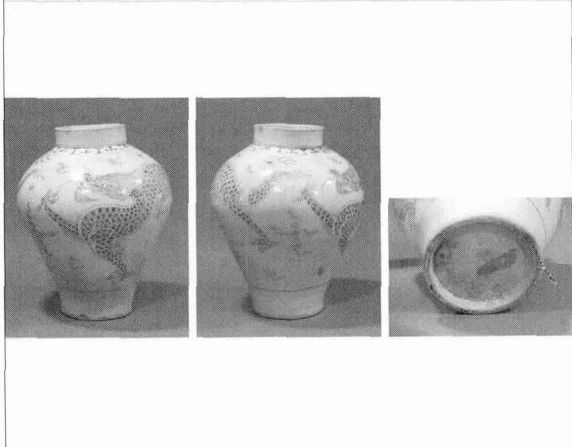
16	白磁青畫 '大' 銘草花文鉢[C-126]	10	16.5	8.3	
17	白磁青畫蝙蝠文罇주[C-135]	12.9	32.1	14.8	
				0.8(밖), 1.2(안)	
18	白磁青畫잉어文罇주[C-136]	8.8	24.7	8.9	2.6 (寬 너비)
				0.6(안)	
19	白磁青畫壽文罇주[C-137]	16.6~18	39.6~41.8	18.2	2.7 (寬 너비)
				1.6(밖), 1.4(안)	
20	白磁青畫佛手文盒[C-138]	16.2	22(盒身)	10.3(盒身)	23.4 (뚜껑 지름)
		12.6(盒身)			
21	白磁青畫 '甲' 銘十長生文雙耳香爐[C-139]	13.3	17.3	14.1	
		2.3(밖)		3.2(밖)	
22	白磁青畫花文櫛匙[C-140]	4.8	18.6	10.4	
23	白磁青畫牡丹文注子[C-147]	17.4	7.4	9.4	7.5(뚜껑 지름) 5.5 (손잡이 높이)
		12.2(몸체높이)	1×1.3(출수구)		
24	白磁青畫雲文二段盒[C-148]	18.8	14.4(밑몸)/ 14.8(중간)	11.2(밑몸)/ 12.8(중간)	15.8 (뚜껑 지름) 4.4(뚜껑 높이)
		8.4(밑몸) 7.6(중간몸)			
25	白磁青畫마름모文盒[C-153]	6	6.7	4.4	7.1(뚜껑 지름) 1.7(뚜껑 높이)
		3.9(盒身)			
26	白磁青畫蟲文盒[C-164]	1.7	4.2	4.2	4.2(뚜껑 지름)
		1.4(盒身)			
27	白磁青畫十長生壽文六角盒[C-165]	7	밑지름과 동일	11.2(각), 9.7(면)	9.8(뚜껑면) 11.3(뚜껑각) 2.2(뚜껑 높이)
		4.9(盒身)			
28	靑彩陽刻梅畫龕文四角盒[C-166]	7.8	8.5×8.6 (盒身)	1.8×1.8(굽)	8.5×8.6(뚜껑)
		5.9(盒身)			
29	白磁青畫龕文담뱃대[C-246]	69(전체)			
		6(빨대 길이)	1.6(빨대)	1.4(빨대)	
		5.9(출연구 길이)	2.4(출연구)	1.4(출연구)	
30	白磁青畫李命熙墓誌石[C-373]	1.6	20.8×20.7		
		1.3	21.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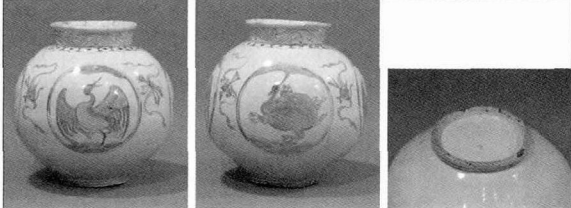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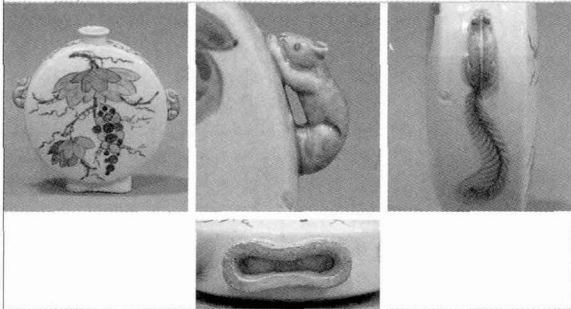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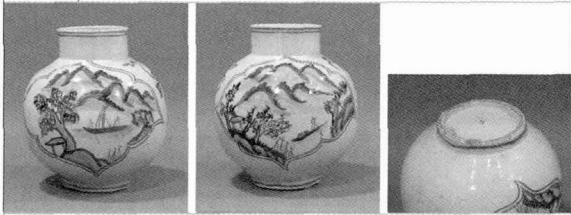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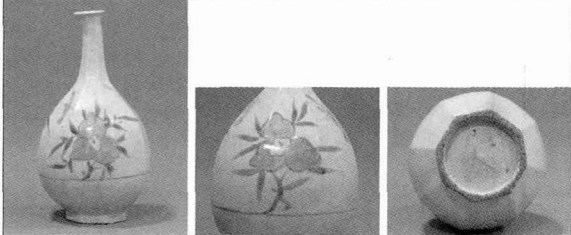
표 2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연적의 명칭과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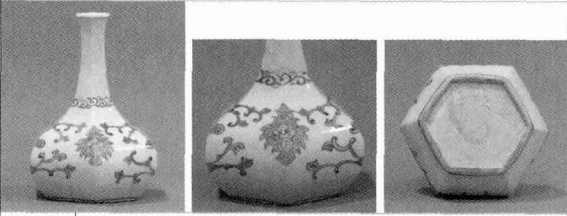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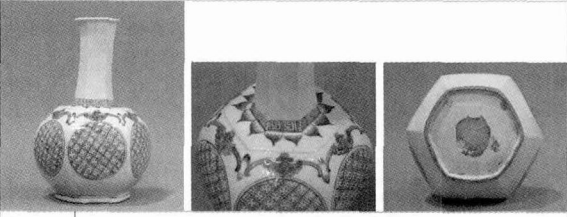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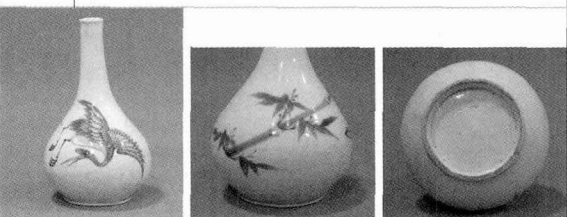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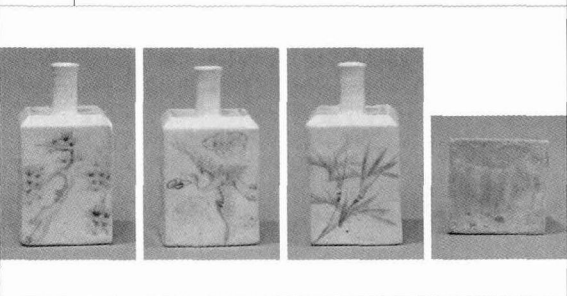
단위: cm

도판 번호	유물명[유물 번호]	유물 크기		
		높이	몸체 크기	밑지름/폭
31	白磁靑畫鐵彩鳥形硯滴[C-178]	4.8	9.4(길이)	6.7(폭)
32	白磁鐵畫草花文圓形硯滴[C-181]	3.3	6.6(몸통 지름)	4.4
33	白磁靑畫騎旅圖文四角硯滴[C-183]	5		9.1×7.3
34	白磁靑畫格子文四角硯滴[C-184]	5.2		6.2×6.2
35	白磁靑畫龜形硯滴[C-185]	5	10(길이)/5.4(폭)	7.1(굽 길이)/5.1(굽 폭)
36	白磁靑畫花鳥文 '乙丑'銘四角硯滴[C-186]	3.7	7(출수구 포함 길이)	5.7×6.3
37	白磁靑畫山水文四角硯滴[C-187]	4.1	6.8(입수구 포함 길이)	5.8×5.8
38	白磁靑畫蘭草文四角硯滴[C-188]	6	10.3(개구리 포함 길이)	8.9×7.3
39	白磁靑畫梅竹文四角硯滴[C-189]	5.3	9(개구리 포함 길이)	5.4×7.7
40	白磁靑畫格子文四角硯滴[C-190]	4.4		7.8×7.8
41	白磁靑畫 '金精玉液'銘四角硯滴[C-191]	3.9	6.8(출수구 포함 길이)	5.5×6.3
42	白磁靑畫草花文扇形硯滴[C-192]	2	7.7(길이)/2.2(끝변)	
43	白磁靑畫山水文扇形硯滴[C-193]	2.8		9.6(윗변)/3.4(밑변)/ 4.2(양변)
44	白磁靑畫 '硯水'銘圓形硯滴[C-194]	3.8	10.5(몸체 지름)/ 11.3(출수구 포함)	6.8
45	白磁靑畫山水文四角硯滴[C-195]	7	6.2×6.2	1.8×2.2(『형 굽』/ 0.6(굽 폭)
46	白磁靑畫七寶雲文六角硯滴[C-196]	6.7	8.3(면)/9.3(각)	
47	白磁靑畫草花文八角硯滴[C-197]	3.3		9.4×9.23.5(팔각면)
48	白磁靑畫草花文六角硯滴[C-198]	1.6		3.4(면 → 면)/ 3.8(각 → 각)
49	白磁靑畫梅蝶八卦文八角硯滴吳墨壺[C-199]	4.4	10.4(면)/10.7(각)	7.7
50	白磁靑畫金剛山形硯滴[C-200]	19.4	14.3×13.7	10.4~9.9
51	白磁靑畫綠彩金浩丁銘家形硯滴[C-201]	6.3	4.4(윗변)/6.7(밑변)/ 5.1, 4.5(양변)	
52	白磁靑畫 '見而妙用而緊體用方通'銘波魚文扇形硯滴[C-203]	2.6	10.4(윗변)/4.5(밑변)/ 3.8, 3.7(양변)	
53	白磁靑彩四角硯滴[C-204]	3.3		5.8×5.8
54	白磁靑彩獅子形硯滴[C-205]	4	8(길이)/5.7(폭)	7.7(굽 길이)/5.7(굽 폭)
55	白磁靑彩獅豸形硯滴[C-206]	4.3	5.7×8.5	6.8~4.3(굽 폭)
56	白磁靑畫銅彩蟾形硯滴[C-207]	5.5	10.2(길이)/7(폭)	6.8(굽 길이)/6(굽 폭)
57	白磁靑畫銅彩蟾形硯滴[C-208]	5	9(길이)/6.2(폭)	6.6(굽 길이)/5.4(굽 폭)
58	靑畫銅畫桃形硯滴[C-210]	8.3	7.5×8	6.5
59	白磁銅彩竹形硯滴[C-212]	6.3	6.3(몸체 최대)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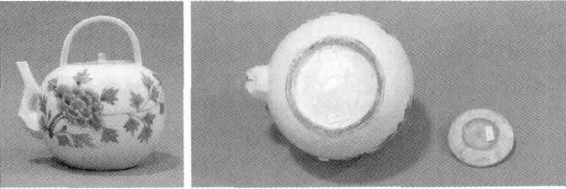
표 3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청화백자 조형 특징

도판 번호	유물명[유물 번호]	유물 특징
1	白磁靑畫花鳥文壺(C-62) 	구연부가 직립하고 어깨가 둥근 전형적인 18세기 이후의 입호로 몸체 1/3에 地線을 그리고 초화, 매, 죽, 조, 충, 국화 등의 다양한 문양을 윤곽선 없이 간략한 필치로 시문하였다. 구연의 직립한 부분에는 맨 윗부분에 한 줄 선문과 그 아래 길상문으로 보이는 문양이 쌍으로 그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발색이(청화) 옅은 편이며 몸체는 기포와 청화가 비산된 흔적이 엿보인다. 문양은 梅·蘭·菊·竹의 사군자로 보인다.
2	白磁靑畫十長生文壺(C-63) 	구연부에 일부 파손과 수리 흔적이 있는 항아리로, 상단부에 여의두문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 사슴·소나무·구름·대나무·바위·영지를 배치하였다. 한 마리만 사슴뿔이 있어서 암·수 한 쌍으로 보이는데 윤곽선을 그리고 淡彩로 채색하였다. 사슴의 몸통 표현은 하나는 선문, 하나는 원문으로 다르게 표현하였다. 끈게 올라간 소나무는 방사형 잎과 좌우로 늘어진 가지가 있으며, 가지 사이에 靈芝形 구름이 군데군데 시문되었다. 소나무 아래 넓은 바위와 초문이 그려져 있고, 그 옆의 대나무는 일자형 죽간과 三葉形 잎이 무성하게 표현된 19세기의 전형적인 문양이다. 우측의 대나무 가지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좌우로 뻗어 올라갔다. 백색도가 우수하고 청화발색과 濃淡이 잘 표현되었으며 각각 소재는 원근, 대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시문하였다. 항아리는 상하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고 그 흔적이 내외에 남아 있다. 18세기경 작품으로 추정된다.
3	白磁靑畫雲龍文壺(C-65) 	왕실 연회용으로 사용됐을 항아리이다. 굽에서 약 1/4의 높이에 선문을, 목과 몸체에 이중 선문과 여의두문을, 그 가운데 정교하고 사실적인 용 두 마리를 운문 사이에 시문하였다. 용은 四爪로, 수염과 머릿결이 진행 방향에 맞게 훑날리고 어금니와 이빨도 가지런하게 정렬되었으며, 눈썹과 양 눈의 원근표현이 뚜렷하며, 비늘도 농담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채색하였다. 여의주의 크기가 작고 꼬리에 배치하였고 긴형 구름을 윤곽선을 따라 경쾌하게 그린 후 靑彩로 마무리하였다. 직립한 구연은 한 줄의 선문이 여의두문 위에 그어졌으며, 구연의 상부에 한 줄의 선문이 있다. 구연과 굽에 대도 일부가 떨어져 나갔으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홍조를 띤다. 몸체는 상하로 나누어 접합·제작하였다. 종속문과 주제문의 숨씨가 달라 용은 화원이, 종속문은 장인이 그린 것으로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4	白磁靑畫龜鶴文壺[C-66] 	<p>달항아리를 연상시키는 둥근 몸체와 높은 목과 구연을 가진 항아리로 몸체 가운데 이중원 안에 학과 거북을 시문하고 그 사이에 길상문을 시문하였다. 학과 거북의 도상은 이미 18세기부터 나오는 것으로 매우 형식화되었으며, 학과 거북 모두 바다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형태로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문양대 안에 청채로 채색을 가하였다. 등글게 외반된 구연에는 이중선각문이 있다.</p>
5	白磁靑畫葡萄文다람쥐形雙耳扁瓶[C-67] 	<p>편병의 양면에 포도문을 주제문으로 시문하고 양 측면에 다람쥐를 첩화한 후 청채하였다. 꼬리는 철채로 장식하였으며 다람쥐와 구연부 사이에 간략한 당초문, 포도잎과 포도알을 시문하고 농담을 표현하였다. 다람쥐의 조각 기술이 우수하며, 다람쥐 다리 사이에 기공이 있다. 한쪽 면의 포도알 부분은 아쉽게도 유태가 모두 박락되어 있다. 굽과 몸체의 접합부에는 터진 흔적이 있으며, 접지 면은 모래 흔적이 있다. 변조시 타원형 굽의 중심부가 휘어져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다.</p>
6	白磁靑畫山水文壺[C-68] 	<p>달항아리 형태의 몸체에 목이 길게 직립된 항아리로 두 개의 이중 능화형 선문 안에 산수문을 배치하고, 능화형과 능화형 사이에 추상화된 팔보문의 일부를 시문하였다. 산수문은 필치가 거칠고 청화 유색도 진하며, 서로 색도 다르다. 문양은 소상팔경 중 원포귀범과 그 외의 도상을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항아리는 상하로 나누어 접합하였다.</p>
7	白磁靑畫栗文瓶[C-70] 	<p>타원형의 병 몸체에, 밖으로 등글게 말린 구연부가 부착된 병으로 굽과 몸체 사이에 구획을 위한 한 줄 횡선을 시문하였다. 청화발색은 우수한 편은 아니나 밤을 주제로 하여 문양을 시문한 이 정도 크기의 병은 흔치 않다. 몸체 일부 유약이 박락되었으며 기포가 보이며 화장용기인 粉水器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p>
8	白磁靑畫草蟲文八角瓶[C-94] 	<p>18세기 이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팔각병으로 각 면에 벌레와 꽃을 교대로 시문하였으며, 몸체의 높이 1/3되는 부분에 地線을 그리고 그 위에 꽃잎은 구름으로 나머지는 물결로 간략하고 생동감 있게 시문하였다. 꽃잎은 三花形이며 줄기, 잎은 마치 대나무와 같은 형상이다. 바닥은 두껍고 구연부에 성형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철분이 많아 회백과 청백이 어우러진 유태를 보인다. 구연부는 외반되었으며, 목 부분이 심하게 휘었다.</p>

9	白磁靑畫寶相華文六角瓶(C-95)	 <p>구연부와 목의 일부에 약간 산화된 흔적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유색과 청화발색이 우수하다. 몸통과 구연에 당초문을, 굽바닥에 선문이 테두리로 시문되었으며 몸통과 구연의 각이 예리하게 잘 처리되었다. 보기 힘든 특이한 형태의 육각병이다.</p>
10	白磁靑畫幾何蝙蝠文六角瓶(C-96)	 <p>몸체와 목의 비례가 거의 1 대 1인 각병으로 각 면의 중앙에 이중원문을 시문하고 원문 안에 마름모꼴의 사각문을 시문하였다. 이중원문 위에 커다란 박쥐문을 그리고 청채로 시문하였다. 목과 몸체 사이에 뇌문과 연판문을 시문하였고 목과 몸체는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구연부 내부는 일부 유약이 박락되었으며, 구연부는 날카롭게 외반되었다. 전체적으로 청백색이 많이 든다.</p>
11	白磁靑畫牡丹蝶文瓶(C-97)	 <p>19세기 전형적인 주병으로 구연부에 4각의 칠보문을, 굽에 2줄의 횡선을, 몸체 가득 모란문을 정교하게 시문하고 모란문 사이에 압수로 추정되는 나비를 시문하였다. 청화발색이 뛰어나고, 태토 또한 잡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백색도를 가지고 있다. 모란꽃 아래 네 마리의 날아다니는 벌이 작게 시문되었는데 유려한 발색과 더불어 좋은 조화를 이룬다. 굽 주변의 청화는 번조시 산화한 정도가 달라 발색이 다르다.</p>
12	白磁靑畫竹鶴文瓶(C-98)	 <p>19세기 전형적인 형태의 병으로 양면에 학과 대나무를, 그 사이에 작은 영지문을 시문하였다. 대나무와 학의 필치가 좋고 생동감이 있으며 학은 유사한 형태가 다른 그릇에도 시문되었다. 구연부가 약간 도톰하게 말려 있고 굽과 몸체에 한 줄의 테두리선을 시문하였으며 굽 안은 일부 산화되어 홍색을 띠고 기포가 보인다.</p>
13	白磁靑畫松竹鶴文四角瓶(C-99)	 <p>전형적인 19세기 사각병으로 구연부가 높고 사면에 운학, 대나무, 운학, 소나무를 차례로 시문하였다. 대나무는 마치 갈대와 같은 風竹의 형태를 띠었으며 다른 면에 커다란 구름과 학을 중심으로 산수를 배치하여 민화를 연상시킨다. 대나무는 針狀形으로 위로 솟아 있고, 소나무가 그려진 면은 일부 유약이 박락되었다. 구연부의 상면에 간략한 당초문을 시문하였고, 구연부에 일부 유약이 박락되었으며 성형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 유색은 청백이나 잡티가 많이 섞여 있고 청화발색이 일정하지 않다.</p>

14	白磁靑畫梅竹文四角瓶(C-100)	<p>유약의 발색이 양호하지 못하고 매화와 대나무의 청화발색 또한 다른 그릇에 비해 떨어진 다. 병의 상부가 구연부로 인해 약간 함몰되었다. 청화색은 진하고 매죽문을 간략하게 시문하였으나 농담이 일정하지 않고 선명도도 떨어진 다. 유색이 전체적으로 회백색이며 바닥은 모래받침으로 일부 산화되어 홍색을 띤다. 매화는 수직 형태의 백매화이며, 대나무는 가지에 비해 잎을 너무 크게 그렸다.</p>
15	白磁靑畫結文四角瓶(C-101)	<p>일반적인 사각병과 달리 각 면이 둥글게 환조되었고 각 면에 팔길상의 하나인 結文을 시문하고 각 면과 면 사이에 백토를 두껍게 첩화하였다. 몸은 사각의 날카로운 선으로, 접합 면에는 양각 화문으로 구획하였다. 유색은 청백색에 가깝고 청화시문은 그리 우수한 편이 아니며, 구연부가 일부 함몰되었다. 굽바닥에는 모래받침이 남아 있고 굽은 마치 동시대 목가구의 굽 모양과 유사하다. 몸체와 굽 사이에 한 줄의 테두리선이 남아 있다. 몸체 내부는 전면 시유되지 않았고 목과의 경계 면에 첩화기법으로 거치문과 화문을 장식한 특이한 형태로 술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p>
16	白磁靑畫 '大'銘草花文鉢(C-126)	<p>굽바닥에 청화로 '大'자가 새겨져 있어 대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면은 네개 면으로 구획하여 각 면에 능화문과 그 안에 초화문을, 테두리가 보이는 삼면 분할의 꽃잎과 같은 문양을 시문하였다. 세로로 칠성을 연상시키는 문양과, ○×문이 하부에 거칠게 시문되었다. 내면의 한가운데 보상화문과 같은 초화문을 시문하고 내면을 4단으로 나누어 안쪽에서부터 첫째 단은 비어 있으며, 둘째 단은 빙렬문, 셋째 단은 청채를, 넷째 단은 산수, 운문을 추상적으로 시문하였다. 내면에 유약의 박락이 보이고 구연은 약간 외반되었다.</p>
17	白磁靑畫蝙蝠文pun주(C-135)	<p>외면 상부에 두 줄의 선문, 하부에 한 줄의 선문이 시문되었으며, 그 사이에 박쥐를 3단으로 시문하였다. 박쥐는 10개, 9개, 7개의 순으로 총 26개이며, 내부에 2개가 있다. 시문방식은 서로 마주보게 윤곽을 그리고 청채하였다. 내면 이중원문 안에 壽자가 시문되었으며, 구연부는 둥글게 말려 외반되었다. 전체적으로 청백색을 띠며, 청화는 밝고 선명하다.</p>
18	白磁靑畫 잉어文pun주(C-136)	<p>구연부가 외반되어 넓은 테두리를 형성한 pun주로 내면에 큰 잉어가 시문되었고 테두리는 五山과 간략한 당초문을, 외면 3군데에 죽엽과 같이 생긴 초문을 절지 형태로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청화가 여러 군데 비산하였으며 기포, 철분, 모래 등 잡물이 많아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다. 잉어와 종속문의 표현이 공예적이다. 굽은 안굽이며 외면의 문양은 내면의 잉어, 종속문보다 시문 기량이 떨어진다.</p>

<p>19</p> 	<p>白磁靑畫壽文罇[C-137]</p>	<p>壽자를 圓圈 형태로 도안화하여 외면에 네 군데, 내면에 한 군데 배치하였다. 그림이 큰 탓에 구연부가 심하게 왜곡되었고 태토에 철분 성분이 많아 그릇 외면 일부에 홍조 현상이 나타난다. 내외면의壽자는 이중원문 테두리 안에 圓圈形의壽자를 배치한 형식이다. 구연부는 외반되고 외반된 부분에는 뇌문이 상하 선문 안에 그려져 있다.罇주 내면에 유약 박락이 많으며, 청화가 비산된 흔적도 많다. 굽과 구연부에 한 줄 횡선이 있다.</p>
<p>20</p> 	<p>白磁靑畫佛手文盒[C-138]</p>	<p>뚜껑 상부와 몸통 내부에壽자가 시문되었고, 발색이 양호하다. 복을 상징하는 불수문이 합과 뚜껑 외면에 당초 형식으로 시문되었고 청화발색은 양호하며 뚜껑 내부에 번조를 위해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다. 굽바닥에 5cm 정도의 터진 자국이 있다.</p>
<p>21</p> 	<p>白磁靑畫十長生文 '甲' 銘雙耳香爐[C-139]</p>	<p>십장생을 양각하고 여백을 청재한 향로로서 양쪽 귀에 귀걸이가 있고 귀와 귀걸이는 유약을 닦아내고 번조하였다. 굽에는 원형과 능화형을 번갈아 가면서 透孔하였다. 몸체는 학, 대나무, 영지, 소나무, 구름, 산, 바위, 사슴 등이 솟씨 좋게 양각되어 있다. 몸체의 귀에 일부 접합된 흔적과 수리된 흔적이 있다. 구연부는 밖으로 벌어지고 벌어진 부분은 청화로 기하학적인 삼각형이 시문되었다. 목에는 타원형을 제외하고 전부 청채하였고 목과 몸체에는 연결부를 양각 선문으로 시문하였다. 향로 내부는 문양이 없고 일부 유약의 비산이 보인다. 굽바닥에 음각으로 '甲'자가 시문되어 품질이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다.</p>
<p>22</p> 	<p>白磁靑畫花文碟匙[C-140]</p>	<p>접시의 내면을 3단으로 구획하여 중앙에 복판의 화문을, 중단에는 등고선 같은 선문을, 하단에는 빙렬문을 솟씨 좋게 시문하였다. 그릇의 외면은 완만한 곡선이며, 끝부분이 원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전체적으로 청백색을 띤 수작이다.</p>
<p>23</p> 	<p>白磁靑畫牡丹文注子[C-147]</p>	<p>19세기 전형적인 모란이 주자의 좌우 면에 시문되었고 뚜껑 접합부에 뇌문을, 수주 손잡이와 출수구에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몸체는 청백색이며 출수구와 몸체는 접합한 흔적이 선명하다. 손잡이에 철분이 많고 몸체 내면은 일부 시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뚜껑과 몸체의 청화발색이 다르고 색이 달라 다른 뚜껑일 가능성도 있다. 뚜껑의 문양은 모란이 아닌 초화문에 가까운 문양이며 출수구는 사각으로, 몸체와 접합부는 거의 오각에 가까운 각형을 보이며 청화 안료의 비산한 흔적과 유약의 박락이 있다.</p>


24	<p>白磁靑畫雲文二段盒[C-148]</p> 	<p>몸체 각 부의 결합이 우수하고 청화발색과 유색이 뛰어나다. 뚜껑 상부에 壽자를 도안화하였고, 몸체에는 구름을 시문하고 여백은 청채로 마무리한 수작이다. 뚜껑 상부에는 壽자를 도안화하여 시문하고, 몸통에는 운문을 시문하고 청채로 마무리하였다. 몸통은 원형의 이단함으로, 뚜껑과 몸체의 접합부는 유약을 닦아냈으며 몸체 내부에 일부 모래와 잡물의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깨끗하다. 뚜껑에도 철분과 모래 흔적이 남아 있다. 몸체 하단부, 굽 내부는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며 뚜껑과 하부 면은 유약을 닦아내었다. 구름은 이중 테두리 선을 두고 五雲形을 하고 있다. 몸통에는 3개짜리 구름, 뚜껑에는 5개짜리 구름을 작게 시문하였다.</p>
25	<p>白磁靑畫마름모文盒[C-153]</p> 	<p>잔과 같은 형태의 몸체와 몸체보다 약간 큰 뚜껑의 함으로 몸체와 뚜껑 전체에 마름모형의 기하문을 시문하였다. 내부는 사각형으로 몸체와 뚜껑의 접합부에 흰선을 시문하여 구분하였으며 몸체 내부에 철분과 기포가 있고 청화발색은 선명치 않다.</p>
26	<p>白磁靑畫蟲文盒[C-164]</p> 	<p>명기 혹은 粉盒으로 추정되는 작은 함이다. 측면의 좌우에 작은 벌레를, 몸체에 길상문을 네 면에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몸체는 원형으로 일반적인 함과는 다르다. 발색은 회백색에 가깝다. 청화발색은 뚜껑은 선명하나, 몸체는 흐릿하다.</p>
27	<p>白磁靑畫十長生壽文六角盒[C-165]</p> 	<p>뚜껑과 몸체가 잘 맞으며 몸체 각 면을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다. 뚜껑 상부에는 소나무와 사슴을, 몸체에는 초화문과 壽자를 거칠고 간략하게 시하였다. 뚜껑에 십장생문이 시문되었고 전서체로 壽자를, 몸체 상부에 뇌문, 하반부에 선문을 시문하였다. 뚜껑의 십장생문의 청화발색이 선명하다.</p>
28	<p>靑彩陽刻梅花齧文四角盒[C-166]</p> 	<p>뚜껑과 몸체의 결합이 매우 우수하고 뚜껑 상부에 齧자를, 몸체에는 매화문을 양각하고 전체를 靑彩하였다. 齧자가 전서체로 양각되어 있고, 몸체에는 매화문이 양각되었다. 청채한 듯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고 매화문의 형태는 네 면이 거의 동일하다. 청채는 매우 진한 편이며, 뚜껑의 절삭 면은 안으로 경사져 있다. 측면의 각이 예리하게 깎였고, 각에는 유약이 흘러내린 모습이 남아 있다. 몸체 뚜껑은 많은 기포와 철분이 보이고 굽은 19세기의 목가구에 나오는 형태이며, 뚜껑의 접지 면 일부에 수리한 흔적이 있다.</p>

29	白磁靑畫龔文담뱃대 [C-246]	<p>出煙口와 빨대 부분은 청화백자로, 몸통은 대나무로 제작한 담뱃대다. 빨대는 상하 뇌문 사이에 龔와 壽자를 도안화하여 써 넣었다. 출연구 역시 상하 두 줄의 선문 사이에 龔을 적고, 연기가 나오는 부위는 사발형으로 제작하였다. 양쪽의 접합부는 끊어진 흔적이 있다. 출연구, 빨대, 몸통이 남아 있는 보기 드문 예이며, 사발형의 출연구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고, 대나무와 연결되는 부위 역시 유약을 닦아 내었다.</p>
30	白磁靑畫李命熙墓誌石 [C-373]	<p>장방형 마구리 끝을 둥글게 처리한 청화묘지석이다. 주인공 이명희는 자는 홍릉으로 1737년 四月十三日生으로 선조의 후손으로 영조 연간 문과에 급제하여 楊根郡守와 承旨에 올랐으며 1783년에 사망하였다. 1793년 이후에 묘지를 제작(부인 것과 같이 문없음)하였고 현재 一, 二판만 남아 있다. 정갈한 書體로 청화발색이 뛰어나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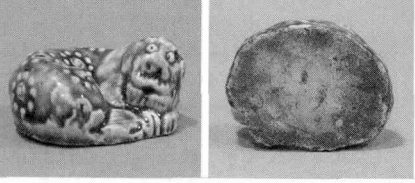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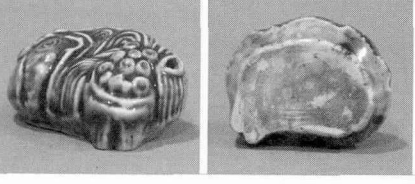
표 4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연적의 조형 특징

도판 번호	유물명(유물 번호)	유물 특징
31	白磁靑畫鐵彩鳥形硯滴[C-178] 	좌우대칭의 날개와 부리가 있는 얼굴 표현에서 새 모양의 연적임을 알 수 있다. 세밀한 표현은 없으며, 전체적으로 새의 형상을 다소 거칠게 만들어서 눈은 청화로 표현하고, 날개에는 여러 개의 반점을 鐵彩하였다. 몸은 청백과 회백의 색상으로 어우러져 있고, 입수구는 날개 위쪽에, 출수구는 부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바닥은 갈아내어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으며, 절분과 기포, 모래 등이 표면에 많이 묻어 있는 상태이다.
32	白磁鐵畫草花文圓形硯滴[C-181] 	보기 드문 철화백자 원통형 연적이다. 윗면에 철화로 간략하게 초화문을 시문하였으며, 둥근금 점으로 표현된 철채 꽃잎 가운데에 입수구가 위치한다. 출수구는 끝부분이 파손·결실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이 강하고 윗면은 광택이 좋은 편이다. 바닥은 모래 받침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인다. 17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3	白磁靑畫騎旅圖文四角硯滴[C-183] 	연적의 윗면에는 삼단구도로 된 한 폭의 기려도가, 하단에는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갈대숲을 헤치고 다리를 건너는 나귀에 탄 인물이 있으며, 중단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상단 우측에는 여러 채의 가옥을, 좌측에는 떼를 지어 날아가는 새를 시문하였다. 각 면은 모두 청화로 사각 테두리를 돌렸으며, 연적의 옆면에는 간단한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입수구는 측면 상단에, 출수구는 윗면 중간에 위치하는데, 모두 개구리(두꺼비) 형상을 만들어 붙인 것이다. 바닥은 태도 면을 갈아서 원래 변조 당시의 흔적은 없다. 19세기 후반에서 말기로 추정된다. 백색도가 우수하고 청화발색도 양호한 편이다.
34	白磁靑畫格子文四角硯滴[C-184] 	연적 윗면에는 마름모꼴 안에 도안화된 꽃무늬를, 옆면에는 『형 꺾쇠 안에 간략한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굽바닥은 모래가 붙어 있고, 바닥을 갈아내어 변조 상태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기형과 문양을 가진 연적들이 국내에도 다수 남아 있다. 굽은 목가구의 형태를 하고 있다.
35	白磁靑畫龜形硯滴[C-185] 	거북 모양의 연적으로 등에는 일반적인 9각 형태의 귀갑문이 아닌 반원형의 파도문 같은 문양을 음각하고 부분적으로 청화를 사용하였다. 두 눈은 튀어나왔고 다리는 가늘며, 정면에서 보면 코와 입을 구멍을 내어 표현하였다. 거북이 등과 두 눈, 얼굴, 몸체 일부에 점을 찍듯이 청화를 사용하였다. 입의 우측 부분이 이쉽게도 파손·결실되어 수리된 상태이다. 바닥은 거북의 형태를 따라서 여러 칸으로 나누는 음각선이 시문되었다. 바닥을 닦아내어 변조방법은 알 수 없다.

36	白磁靑畫 '乙丑'銘花鳥文四角硯滴[C-186]	<p>연적 윗면에는 소나무·새·난초·영지·괴석을 숨쉴 좋게 그려 넣었고 측면에는 모두 이중 능화형 안에 간략한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백색도가 뛰어나고 청화발색도 우수하다. 윗면 중앙에 입수구를, 옆면 중앙 모서리에 대롱형 출수구를 배치하였다. 바닥에 '乙丑五月初六日 池豁達' 명문이 청화로 쓰여 있다. '乙丑'은 1865년(혹은 1925년)으로 추정된다. 지할달은 소장자로 추정되며, 낙관으로 보이는 기호도 쓰여 있다. 네 모서리에 있는 사각의 짧은 굽다리는 목기구 다리와 같고, 모래받침 흔적이 보인다.</p>
37	白磁靑畫壽福銘山水文四角硯滴[C-187]	<p>측면에는 壽·福을 도안화하여 壽·福·壽의 순서로 세 글자씩 시문하였다. 글자의 위 아래로 두 줄의 선문을 시문하고, 위쪽에는 뇌문을 배치하였다. 윗면은 상단에는 해, 중단에는 산, 하단에는 파도가 시문되었는데,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별도의 대롱을 부착하였으나 일부 파손되었다. 백색도가 좋으나 문자와 그림의 시문 수준은 약간 떨어지는 편이다. 바닥을 갈아 번조방법을 알 수 없지만 모래받침 흔적이 일부 남아 있고 역시 파손된 흔적이 있다.</p>
38	白磁靑畫蘭草文四角硯滴[C-188]	<p>측면과 윗면에 모두 청화로 사각 태두리를 하고 그 안에 난초문을 시문하였다. 난초 문양의 표현기법은 구름법과 물골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윗면에 일부 잡물과 청화의 비산 흔적이 있다. 입수구는 측면 상단 중앙에, 출수구는 윗면 모서리 중앙에 위치하며, 개구리는 형상을 따로 만들어 붙이는 첩화기법을 사용하였다. 출수구로 장식된 개구리의 눈은 동채나 철채로 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을 갈아 원형을 알 수 없으며, 청화 색상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백색도도 뛰어나다.</p>
39	白磁靑畫梅竹文四角硯滴[C-189]	<p>사각 연적 윗면에 매화와 대나무를, 각 측면에 괴석과 영지를 번갈아가며 구름법을 사용하여 청화로 시문하였다. 입수구는 상면 모서리 중간에, 출수구는 측면 상단 중앙에 개구리 모양으로 만들어 붙였는데, 출수구 개구리의 입 주위가 파손된 상태이다. 문양 표현이 우수하며 청백색을 띠고 유색이 밝은 편이다. 굽은 갈아 내어 원형을 알 수 없다.</p>
40	白磁靑畫格子文四角硯滴[C-190]	<p>윗면에는 마름모꼴의 기하문을 시문하였으며 그 중앙에 입수구를, 모서리 가운데 출수구를 배치하였다. 옆면에는 태두리 안에 간략한 초화문을 시문하였다. 굽은 목기구에 보이는 형태이며, 바닥은 모래받침으로 보이나 갈아내어 원형을 알 수 없다. 태도에 철분이 많아 회백색을 띠며, 문양 표현도 거친 편이다.</p>

41	白磁靑畫 '金精玉液' 銘四角硯滴[C-191]	 <p>윗면에는 마름모꼴로 구획을 하고 그 안에 靑窯자기의 특징인 부정형의 빙렬 문양을 시문하였고, 옆면에는 이중 능화형 안에 각각 '金精玉液'의 네 자를 적고 꽃잎 모양의 종속문을 가장자리마다 시문하였다. '금정옥액'은 신선이 마시는 특별한 약이나 액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명문이 있는 청화백자가 국내에도 몇 점 남아 있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옆면 모서리에 대롱 형태로 첩화하였다. 백색도와 청화발색이 모두 좋다. 사각형의 짧은 굽다리가 네 모서리에 있고, 굽다리 바닥을 갈아내어 정확한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p>
42	白磁靑畫草花文扇形硯滴[C-192]	 <p>윗면에는 테두리 안에 난초문을, 나머지 면에는 간략화된 초문을 청화로 시문하였다. 기포가 많고 철분이 다량 포함되어 백색도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청화발색이 진한 편이다. 출수구와 입수구가 윗면 가장자리에 있다.</p>
43	白磁靑畫山水文扇形硯滴[C-193]	 <p>부채꼴의 연적으로, 윗면에는 청화 테두리 안 원편에 누각, 오른쪽에 기암절벽과 그 앞을 지나가는 배 두 척을 간략하게 묘사한 산수문을 시문하였다. 출수구는 윗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있다. 바닥은 갈아내어 원상태를 알 수 없으며, 백색도와 청화발색은 양호한 편이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p>
44	白磁靑畫 '硯水' 銘圓形硯滴[C-194]	 <p>연적 윗면에 '硯水' 명을 중심으로 주변에 간략한 초문이 시문되었다. 硯水 명문은 드문 예이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측면에 대롱 형태로 첩화하였다. 몸체는 회백색을 띠며, 청화 색상은 진한 편이다. 유약이 박락된 곳이 많으며, 굽 일부가 파손되었고 모래받침 번조로 추정된다.</p>
45	白磁靑畫山水文四角硯滴[C-195]	 <p>연적의 윗면에 도안화된 산수문이 시문되었다. 옆면에는 모란절지로 보이는 문양이 시문되었지만 청화가 먼저 선명하지 못하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구멍을 뚫었고, 출수구는 윗면 모서리 중앙에 첩화되었다. 굽은 목가구의 다리처럼 'I' 형태로 약간 밖으로 휘어져 있으며, 접지 면을 갈아내어 정확한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진한 청백색을 띠고 있다.</p>
46	白磁靑畫七寶雲文六角硯滴[C-196]	 <p>연적 윗면에는 구름을 청화로 윤곽선을 그리고 나머지 여백 부분을 청채하였다. 구름문은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하는 문계구름 형태다. 측면에는 테두리선을 그리고 칠보문을 그렸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구멍을 뚫었고, 출수구는 측면 중앙에 첩화하였으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다. 백색도가 우수하고 청화발색도 양호하다. 굽다리는 모두 6개로, 목가구 다리와 동일한 형태이며, 굽 하나는 수리되었다. 굽바닥을 갈아내어 정확한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p>

47	白磁靑畫草花文八角硯滴[C-197]	<p>각 면이 오목하게 들어간 팔각 연적이다. 윗면에 괴석과 초화문, 여덟 개의 옆면에는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간략화된 당초문이 청화로 시문되었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윗면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청백색조가 강하고 일부 옆면에는 모래 등의 잡물이 보이고 바닥은 갈아내어 원형을 알 수 없다.</p>
48	白磁靑畫草花文六角硯滴[C-198]	<p>보기 드문 작은 크기의 연적으로, 윗면에는 국화로 추정되는 초화문이 간략하게 시문되었고, 측면에는 선문을 시문하였다. 출수구와 입수구의 구멍을 뚫은 솜씨나 모서리를 예리하게 깎은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접지 면을 갈아내어 번조법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p>
49	白磁靑畫梅蝶八卦文八角硯滴 및 墨壺[C-199]	<p>굽은 고리 모양 연적으로, 가운데 부분은 墨壺 형태로 물을 담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윗면에는 매화나무와 두 마리 나비가 청화로 시문되었다. 옆면에는 한 칸씩을 띄고 팔괘가 시문되었다. 입수구는 윗면 모서리 중앙에, 출수구는 측면에 대롱 형태로 첩화되었다. 청백색조가 연하며, 굽을 갈아서 번조 상태를 알 수 없다. 굽바닥에 ×자 형태의 기호가 음각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되는 다기능성의 문방구로 추정된다.</p>
50	白磁靑畫金剛山形硯滴[C-200]	<p>바위·동굴·폭포·가옥·기암을 모티프로 하여 뛰어난 조각적 역량이 발휘된 대형 연적으로 백색도가 뛰어나고 청화의 발색도 우수하다. 입수구는 산의 상부에 있는 가옥의 문에 있고, 출수구는 가장 위쪽의 봉우리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요철이 심하여 유약이 두껍게 시유된 부분은 일부 초록색으로 보인다. 굽은 바닥을 갈아내어 번조방법을 알기 어렵다. 크기가 크고 무거워서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장식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51	白磁靑畫綠彩 '金浩丁' 銘家形硯滴[C-201]	<p>사다리꼴 형태의 판 위에 '丁' 형태의 집 모양을 만들고, 우진각 지붕을 씌운 家形 연적이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고, 청화와 녹색의 발색은 선명한 편이 아니다. 지붕 기왓골과 벽체의 일부 반점은 녹색채를, 문과 창문, 명문 등에는 청화를 사용하였다. 사다리꼴 지반의 옆면에 청화로 '金浩丁'이라는 명문과 매화로 보이는 간략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출수구는 가운데 지붕 오른쪽에, 입수구는 왼쪽 벽체 상단에 뚫어 있다. 굽은 바닥을 갈아내어 번조상태를 알기 어렵다. 20세기 초 작품으로 추정된다.</p>

52	白磁青畫波魚文扇形硯滴[C-203] 	연적의 전체 면을 청채하고, 뒷면에 일링이는 물결 속을 헤엄치는 세 마리의 물고기를 음각하였다. 측면에는 '見而妙用而繫體用方通'이라는 명문을 음각하였다. 명문은 "볼 때도 신묘한 작용을 하지만 體와 用이 긴밀해야 바야흐로 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연적을 사용하는 이의 마음가짐과 자세도 중요함을 이르고 있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윗면 좌측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다. 바닥은 갈아내어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
53	白磁青彩四角硯滴[C-204] 	바닥 면을 제외한 연적의 전체 면을 청채하였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옆면 중앙에 만들어 붙였으나 일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다. 굽다리는 'ㄱ' 형태이며, 백색도는 좋은 편이다.
54	白磁青彩獅子形硯滴[C-205] 	개와 유사한 얼굴 모습에 당 사자와 같은 꼬리와 발톱을 가진 독특한 형태의 연적이다. 튀어나온 눈, 두꺼운 귀, 가지런한 발, 당 사자의 꼬리가 표현되었다. 몸체에는 九花形 돌기를 군데군데 양각하였다. 입수구는 몸체 중앙에, 출수구는 왼쪽 귀에 있으나 귀의 일부가 파손 결실되었다. 굽에 모래 흔적이 있으나, 바닥을 갈아내어 번조방법을 알 수 없다.
55	白磁青彩獅鬚形硯滴[C-206] 	해태 모양의 연적으로, 꼬리와 얼굴, 입, 머리, 귀 등의 조각이 튀어나고 전체적으로 양감이 잘 표현되었다. 몸체를 靑彩하였으며, 굽바닥을 갈아내어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 입수구는 몸 중앙에, 출수구는 왼쪽 귀에 구멍을 뚫어 만들었지만 출수구로 사용된 귀 일부분이 약간 파손된 상태이다.
56	白磁青畫銅彩蟾形硯滴[C-207] 	두꺼비 모양 연적으로, 팔과 다리, 얼굴, 눈, 볼룩한 배, 튀어나온 입, 가지런히 모은 손 등 두꺼비를 특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눈동자와 입술은 銅彩로, 그 밖은 청화로 시문하였다. 몸체에는 六花形 돌기를 군데군데 양각하였다. 입수구는 등 중앙에, 출수구는 입 부분에 있다. 굽바닥에는 모래 흔적이 있으나 갈아내어 정확한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 회백색이 진하고 일부 표면에는 철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윗입술의 우측편이 일부 파손되었고 유면에 균열이 심한 편이다. 형태와 장식이 매우 해학적이다.

57	<p>白磁靑畫銅彩蟾形硯滴[C-208]</p> 	<p>C-207과 한 쌍으로 추정되는 두꺼비 모양 연적이다. 몸체에 六花形 돌기가 양각된 점, 출수구와 입수구의 위, 얼굴 표현 등이 유사하여 두 작품이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얼굴 표현에서 눈가 주름만 청화로, 나머지는 동채로 시문한 점이 다르고 몸체의 볼륨감은 약간 떨어진다. 釉面에 균열은 없으며 회백색조가 강한 편이다. 굽바닥을 갈아내어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p>
58	<p>靑畫銅畫桃形硯滴[C-210]</p> 	<p>19세기에 많이 제작된 천도복숭아를 소재로 제작된 연적이다. 복숭아의 잎과 가지는 청화로, 복숭아의 끝부분과 五花形 돌기는 동채로 시문하였다. 철분과 청화가 비산된 흔적이 많아 전체적인 색상은 회백과 청백색조가 강하다. 따로 만들어 붙인 굽은 갈아내어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p>
59	<p>白磁銅彩竹形硯滴[C-212]</p> 	<p>대나무 모양의 연적으로 몸체는 네 면으로 나뉘었고, 죽엽과 마디는 음각으로 표현하였다. 윗면은 네 옆으로 이루어진 화형이며, 일부 파손된 흔적이 보인다. 입수구는 윗면 중앙에, 출수구는 측면에 만들어 붙였으나 실제 출수구는 그 위쪽에 구멍을 뚫어 따로 만들었다. 굽바닥까지 채색하였고, 굽을 갈아내어 번조방법은 알 수 없다. 동채 색상은 농담의 차이가 심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다.</p>

국문초록

본 연구는 高麗美術館 소장품 중 59점의 19세기 백자를 현지에서 실견 및 실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자의 색상과 제작기법, 기형, 문양 시문 등을 자세히 고찰하여 그 양식 특성을 소개하고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려미술관은 일본 교토에 소재한 사립미술관으로 1988년 재일교포인 故정 조문씨가 기증한 1,700여 점의 기증품이 중심이 되어 문을 열었다.

고려미술관 소장 19세기 백자들의 양식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다양한 器種과 技法, 文樣을 들 수 있다. 기종의 경우 완·발·찬합·주병 같은 飲食器皿과 향아리·향로 등의 儀禮用器, 연적과 필가·묵호 같은 문방구류, 묘지석 등 19세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백자 기종이 망라되어 있다. 문양도 운룡문과 산수문, 십장생, 박쥐, 불수, 모란, 포도, 다람쥐, 대나무 등으로 筆致와 농담 처리 등에서 일부 열악한 것도 있으나 대부분 타 박물관 소장품들과 비교할 때 우수한 편이다.

장식기법도 다양해서 靑畵와 鐵畵, 銅畵가 다 사용되었고 이들을 혼용하기도 하였으며 양각청화와 문양 이외의 여백을 청화로 채색하여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성형 기법을 보면 향로의 경우 귀걸이 연결 부위에는 유약을 칠하지 않고 번조하여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층 찬합도 일그러짐 없이 이가 잘 맞물리도록 하였다. 또한 30여 점의 다양한 형태와 장식의 연적에서는 19세기 문방구류에서 느낄 수 있는 해학과 서정성, 과장과 치졸함이 공존하는 공예미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들은 모두 우수한 조형성과 제작기술 등을 갖춘 작품들로 조선시대 19세기 백자를 조명하는 데서 귀중한 자료로 보전되었다.

Abstract

Nineteenth-Century Porcelain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Koryo Museum of Art in Kyoto

Bang Byungsun*

In this paper, I examined 59 porcelain work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ollection of the Koryo Museum of Art in terms of the production techniques, colors, shapes and motif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works. The Museum was established by the late Jung Jo-mun in 1988 and located in Kyoto, Japan. It has 1,700 works donated by its founder. Among them, the Joseon-dynasty porcelain works are superior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Especially the blue-and-white works dating from the 19th century, which amount to 200 pieces, are of excellent quality compared with those in any collections in Korea an overseas.

Diversity in their techniques and decoration motifs is the prime characteristics of style. Various types such as tableware, ritual ware, stationery (water dropper, pen stand, ink container) and even epitaphs, are present in the collection. Motifs of dragons and clouds, landscapes, bats, the Buddha hands, peonies, grapes, squirrels and bamboos were painted.

Decorations in underglaze blue, underglaze iron-brown and underglaze red-copper were used separately or sometimes together on the vessels. Blue coating on the porcelain and relief carving make ceramics look better and luxurious. Various shapes of water droppers showed the aesthetics and beauty of the nineteenth-century porcelain.

* Professor, Korea University